

## 마음의 시선으로 소외된 이들을 돕다



사진작가 이요셉 씨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남다른 시선으로 카메라에 담으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요셉 씨는 사진을 찍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작가다. 선천적으로 일부 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색약이지만 그의 삶에 제약은 없다. 오히려 자신이 지닌 재능으로 다채로운 삶을 꾸려나가고 있다. 그는 코로나 시기, 온라인에서 동료 작가들과 ‘세이 헬로(Say Hello)!’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고 연락이 끊어진 지인에게 안부를 전하는 릴레이 형식의 프로젝트였다. 전화나 메시지로 서로를 응원하고 SNS에 인증해 동참을 이끌어 냈다.

“코로나 팬데믹은 조금 특별했던 것 같아요. 원래 힘든 일은 힘을 합쳐서 이겨내야 하는데, 접촉과 만남이 제한되었으니까요. 외롭고 우울할 수밖에 없는 시기에 서로 잘 지내고 있는지 묻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요셉 씨는 누군가를 돕고 지지하는 일에는 만남과 경험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한다. 도움이 필요한 이의 숨소리와 온도를 느끼고 나면 비로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알게 된다고 덧붙인다.

### 5천 명에게 깨끗한 물을 선물하다

아프리카 차트에 우물을 설치하는 봉사도 그렇게 시작됐다. 2007년부터 국제구호단체의 요청으로 아프리카 현지 모습을 카메라에 담은 이요셉 씨는 2009년 생후 5개월의 여자아이 ‘유누스 이삭’을 만났다. 오염된 물 때문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삭을 보며 같은 또래의 딸이 떠올라 마음이 아팠다. 개인적인 후원을 약속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귀국 열흘 만에 이삭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다.

“이삭의 죽음 이후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는 일이 절실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진을 찍는 봉사에서 우물을 설치하는 봉사로 확장한 계기가 됐습니다. 우물 1개를 설치하는데 3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해서 사진전을 열고 모금활동을 했는데, 당시 2,500만 원의 기금을 모아 차드 10개 마을에 수동식 식수 펌프가 달린 우물을 설치할 수 있었어요.”

우물 기부는 꾸준히 지속됐다. 이요셉 씨가 기부로 설치한 우물은 47개로, 올해 예정된 3개의 우물이 완성되면 총 50여 개가 된다. 약 5천여 명의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양이다.

그는 2016년 네팔 대지진이 발생했을 당시에 현지에서 찍은 사진으로 달력을 만들어 판매 수익을 피해 복구 비용으로 기부했다. 그 밖에도 많은 비영리단체와 함께 케냐,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필리핀 등 저개발국가의 오지마을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이어왔다. 사진 전시회를 열고 다큐멘터리, 달력 등을 제작하며 빈곤과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개발국가의 모습을 알리는 데 힘썼다. 이요셉 씨는 이 공적을 인정받아 2021년 아산상 자원봉사상을 수상했다.

“그동안 저개발국가의 현지 모습이 빈곤, 아픔, 고통 등의 부정적인 메시지로 대중에게 전달됐다면, 저는 조금 다른 방향을 찾고 싶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은 밝고 환하게 생활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노력했죠.”

### 마주하고 경험하는 봉사와 나눔

이요셉 씨는 수용자 자녀를 돕는 복지단체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부모가 감옥이나 구치소에 갇히면서 가족이 해체된 수용자 자녀는 경제적 어려움과 정서적 트라우마를 동시에 겪는다. 그는 수용자 자녀를 만나 사진을 가르쳐주고, 함께 여행과 봉사를 다녀와 사진전을 열기도 했다.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 장남이나 장녀일 경우에는 형제자매에게도 가정이 처한 상황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아이들이에요. 자신의 죄가 아님에도 비밀을 지니고 모든 어려움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자신의 존재 자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최근에는 교도소 안에서 여성 수용자와 함께 사는 어린아이들의 양육비 모금을 위해 자신의 작품 사진이 실린 달력을 기부했다. 북한 이탈청소년을 위한 사진 촬영, 희귀난치병 환아를 위한 후원 등 소외된 이들을 마주하고 경험하며 그의 삶은 더욱 단단해졌다.

“봉사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나, 봉사를 시작하면 마음으로 너무 큰 부담을 안게 될까 봐 망설이는 분들이 많은 것



아프리카에서 아동들과 함께한 이요셉 씨.

같아요. 누군가를 돕는 일이 한 사람을 책임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아마 저도 못 했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책임지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한다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어요. 그 한 가지를 하게 되면 그 한 걸음이 다음 걸음으로 이어지고, 새로운 걸음이 만들어 지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얻은 깨달음이에요.”

### 누구에게나 보석이 있다

이요셉 씨는 대중을 향해 꿈을 주제로 한 사진 교육과 나눔 강연을 진행하고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강사로도 활동 중이다. 그가 강단에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

“가난이나 아픔을 개인의 의지, 또는 개인의 문제로만 바라보지 말자는 것입니다. 노숙인을 향해 ‘조금만 더 의지를 다지면 되지,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라고 여기기 쉬운데요. 어떤 구조나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한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그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무시하지 않길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그 나름의 보석이 있기에, 마음의 시선으로 그 보석을 보려고 노력한다는 이요셉 씨.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인생은 선물 같다”라고 말한다. 인생을 자신이 소유한 것처럼 살기보다 선물 같은 생을 선물처럼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한다. 🍎

글 **곽한나** 작가